

강원도회 김철호 회장

꿈과 희망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강원도회

전국 시·도회는 지난 해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김철호 강원도회 회장[한신이엔지건설(주) 대표]으로부터 강원도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김철호 회장은 강원지역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 신축사업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추진 및 강원지역 건설공사 예산삭감 저지 등 활발한 대외활동과 회원사 화합을 위해 폭넓은 유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편집자 주]

제9대 회장으로서 활동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협회 최연소 회장으로서 젊고 왕성한 활동력으로 강원지역 회원사의 화합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하다 보니 어느덧 임기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약 82%가 산간지역으로 우리나라 등줄기인 태백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뻗어 내리면서 영동과 영서로 구분됩니다. 동해안인 영동과 내륙인 영서는 지형적 특성처럼 사람들 성향 또한 크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어느 시·도보다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회원사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기도 합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많은 지역이라 공사가 많지 않습니다. 일거리가 많지 않다 보니 회원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화합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회원사의 기성실적이 낮아서 우리도회 살림살이도 매우 웅색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성실적이 제주도보다 더 낮아져 전국 꼴찌를 기록함으로써 회원사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회 회의 시 우리도회의 열악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채 탕감 요청과 함께 올해 신설된 가스재난재해예방 복구반 운영비 부담문제 해결 및 재정지원, 공제조합의 추천영업소 폐쇄 저지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상일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회장님들께서 우리도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서 올해 처음으

로 지원금을 받아 어려움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 지원하여 주신 이상일 회장님과 시·도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거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의 대형 업체들이 수주하다 보니 정작 우리도회 회원사의 몫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강원도 예산이 평창올림픽에 쏠리다 보니 건설예산이 줄어들어 발주물량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시설공사의 기계설비 분리발주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흔히 시설물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곳은 초등학교이고 그 다음으로 군부대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북한과 인접해 있어서 군부대가 많습니다. 현재 군부대 시설은 90% 이상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회 대부분의 회원사가 공사를 하고 있으나 이윤이 적습니다. 우리도회 회원사들이 국방부 시설의 신축공사를 분리발주로 수주한다면 일거리가 충분히 창출될 것입니다. 그동안 군부대 신축공사는 분리발주 되지 않았으나 몇 년 전에 몇 건의 신축공사가 분리발주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이익을 제기하는 바람에 신축공사 발주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다져놓은 인맥을 적극 활용하여 국방부 시설의 신축공사 전체가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이상일 회장님께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기계설비 공사비가 전체 공사

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가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돼 있어서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시대의 건물 건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건축공사나 전기공사는 예정가격의 70~80% 선에서 낙찰되는데 기계설비공사가 55% 선에서 낙찰되고 있는 이유는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이기 때문이며, 낮은 공사단가로는 더이상 업체들이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다달았고 이대로 방치하다간 국내 기계설비업체가 공멸할 게 자명하다”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일 회장님은 또 “기계설비 분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만 약 30조원으로, 신축된 새 건물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기계설비 시공이 필수이며, 개선책으로 기계설비공사도 전기공사처럼 하나의 독립적인 공사로 인정받는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할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할인 에너지합리화법 적용을 받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국토부가 아닌 산업부 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파장을 생각할 때 업계 전체를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겠다는 확고한 의지 없이는 발언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전국의 회원사들이 업계 전체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계신 이상일 회장님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일 회장님의 깊은 뜻을 우리도회 회원사에게 알리기 위해 간담회라든지 회원사가 모이는 자리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회장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전국 회

원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짧은 혈기를 내세워서 우리도회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열심히 쫓아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기계설비업을 자식들에게 선뜻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대 목표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강원도회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우리도회는 타지역보다 공공공사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원도급 공사 수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건설 물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원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로 수주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도회는 도내의 많은 발주기관에 분리발주의 이점을 홍보하고 적극 건의함으로써 분리발주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분리발주가 확고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많은 군부대들은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으나 신축공사는 건축에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

리도회의 노력으로 몇 해 전에는 몇건의 신축 공사가 분리발주 되었으나 다시 통합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회는 국방시설본부와 강원시설단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기계설비의 분리발주를 적극 요청하였고 본회와도 긴밀한 협조 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분리발주 필요성을 역설하며 분리발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합건설업계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강력히 저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기계설비건설업체들이 간혹 부실시공 및 공정간의 트러블로 발주기관과의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잦아지면 분리발주의 명분이 점차 희박해 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분리발주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강원지역 교육청 시설공사는 100% 가까이 분리발주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역대 회장님들께서 적은 예산이지만 결식아동돕기 성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육청은 우리 업계의 큰 발주기관이자 기계설비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기관입니다. 일부이긴 하나 최근 교육청의 통합발주 움직임은 우리업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타 기관에도 확산된다면 우리 기계설비업계는 원도급자의 반열에 올라서기 전에 다시 하도급자의 위치로 내려앉게 될 우려가 큼니다. 우리도회는 앞으로도 교육청 분리발주가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경북도회가 경북교육청으로부

터 ‘공사금액 제한 없이 분리발주 시행’을 구두로 약속받은 바 있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도회 회원사들은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회원사들의 바람대로 우리 강원지역에서도 금액제한 없이 분리발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들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에너지원으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지역은 아직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설비공사도 분리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수주환경 개선

강원도회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해 기성실적이 전국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내 건설경기 침체로 회원수 대비 공사물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획기적인 전환 없이는 앞으로도 도내 건설공사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지나치게 낮게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회원사의 피해가 극심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만이 우리 회원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도회는 발주기관의 부당한 관행을 적극 저지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로 회원사의 수익창출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회원사 스스로 텃핑수주를 지양해야만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품질을 높여 성실시공을 해야

만 발주처에 적정공사비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원사 화합과 소통을 위한 지역회원사 간담회 활성화

저는 지난 해 총회에서 경선에 의해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경선을 치르다 보니 초창기에는 회원사가 다소 분열되었습니다만 경선하신 분과 함께 협회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회원사 전체의 화합을 위해 힘쓰다 보니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치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회원사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상 200여 회원사가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회원사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리업계의 현안사항 등을 토의하고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사를 수시로 방문하여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은 예산이지만 간담회 뿐만 아니라 친목대회 및 체련대회 등 회원사와 함께 하는 자리도 자주 마련하여 회원사의 참여와 결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협회 홍보활동 강화

협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도내 발주기관에 '기계설비'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계설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맨투맨 작전으로 발주기관 담당자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우리협회의 위상을 크게 향

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도회는 열악한 살림이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계공고에도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양성은 물론 협회 이미지를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원사에게 한 말씀

건설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회원사의 수주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회는 공공공사 분리발주를 통해 회원사의 원도급 수주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발주는 협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성실시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 공공공사의 원도급 비율이 높고 분리발주가 크게 활성화 된 것은 그동안 여러 회원사들의 성실시공이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발주처에 분리발주 확대를 건의하는 것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곳은 발주처이며,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은 회원사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물론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볼 때 서운한 면이 다소 있겠지만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현행법에 아쉬운 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발주 된 공사가 통합 발주 된 공사보다 품질이 월등히 높다는 인식을 발주처에 지속적으로 심어줘야만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우리업계의 발전

과 회원사 여러분의 지속성장을 위해 성실시공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해 총회에서 경선으로 불협화음이 다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9대 집행부에 적극 성원하여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이 자리

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성실히 봉사하여 우리업계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원지역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강원도회 사무처 직원들
(왼쪽부터 손유현 사무처장, 이남경 직원)

김철호 회장은

- 1967년생
- 울산대학교 조선 해양공학과
- 한국JC 삼척청년회의소 감사, 부회장
- 한국JC 강원지구 상무위원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강원도회 운영위원(7대)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강원도회 회원감사(8대)
- 現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강원도회 회장(9대)
- 現 법무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법사랑위원
- 現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 청소년 보호관찰위원
- 現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 現 삼척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위원
- 육군제23사단장 감사장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표창장
- 강원도 교육감 표창장
- 강원도지사 표창장
- 소방방재청장 표창장
- 춘천지방검찰청장 표창장